

장애인의 인적 및 사회문화적 자본이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이경준¹, 정명선^{2*}

¹중부대학교 복지학부, ²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전공

The Effects of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on Economic Independ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Disabled Persons

Kyong-Jun Lee¹, Myung-Sun Chung^{2*}

¹Division of Welfare, Joongbu University

²Department of Counseling Psychology Education, Joongbu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적, 사회문화적 자본이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갖고 실증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종합하면 전체적으로 인적 자본은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화적 자본 또한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각각됨으로써 인적 자본만으로 바로 생활의 활력소가 되지 못하고, 또한 경제적 자립만으로 바로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기제로서 상호관계성은 갖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본 결과를 바탕으로 실용적이고 다변화된 인적 및 사회문화적 연계망 활성화를 논하였다.

• 주제어 : 인적 자본, 사회적 자본, 문화적 자본, 경제적 자립, 생활만족도

Abstract This study is intended to look into the effects of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on economic independence and life satisfaction in disabled persons, and the reciprocal relationships. To achieve this, a survey was empirically carried out to the disabled. The findings were summarized as follows. As for the above-stated findings, human capital had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independence, and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had a positive effect on economic independence and life satisfaction, comparing those with rejection of the effect of human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and the effect of economic independence on life satisfaction. Consequently, human capital is not just a tonic for disabled persons' life, and economic independence has not just a reciprocal relationship as a mechanism to improve life satisfaction. Based on this result, we discussed the activation for practical and diverse human, social and cultural networking.

• Key Words : Human capital, Social capital, Cultural capital, Economic independence, Life satisfaction

*Corresponding Author : 정명선(coup001@hanmail.net)

Received May 5, 2017

Accepted June 20, 2017

Revised June 8, 2017

Published June 28, 2017

1. 서론

우리 사회에서의 장애인인 불평등한 생활 속에 소외된 소수집단으로 교육·취업·결혼 등 생활 전반에 있어 어려운 삶을 살고 있다. 특히 인적 자본이나 사회문화적 자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아 장애인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더욱 열악하게 만들고 있다[1]. 이로 인해 장애인은 사회적으로 자신의 역할을 수행하는 데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으며, 특히 심리·사회적 위축으로 경제적 자립 활동에 대한 참여가 제한됨으로써 결국에 사회문제로까지 확산되고 있다[2].

실제로 2014년 장애인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나라 15세 이상 장애인구 대비 장애인 취업자 비율은 36.6%로 전국 인구대비 취업률인 60.9%의 절반 수준에 불과할 만큼 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게다가 장애인 가구의 월평균소득도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인 4,152천원 대비 2,235천원으로 나타나 경제상태의 열약성이 증명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체 장애인의 67%가 자신의 가구를 저소득 가구로 인식하도록 하여 그들의 생활안정 비율 또한 55.6%에 머물게 하고 있다. 즉 경제적 측면에서의 열약성 내지 한계적 상황은 곧 장애인의 생활만족 수준과 직결되고, 그 과정에서 개인이 축적해온 인적 자본과 사회문화적 자본축적의 취약성이 다시금 그들의 낮은 경제적 자립으로 이어져 결국 전체적인 생활불만족으로 환류 된다는 점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보여준다[3].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들 중, 특히 인적 자본은 생산 활동을 가능하게 하는 개인과 관련된 자원이다. 예를 들면 교육, 소득, 건강과 같은 것으로, 이는 교육수준이 높거나 낮을수록 경제활동 참여율도 비례한다는 연구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다[4,5,6,7]. 즉 자본이론과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인적 자본인 건강요인,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이 주요 사회문화적 자본과 함께 경제적 자립과 높은 연관성을 갖는다. 또한 사회문화적 자본도 중요한 영향요인으로서 사회문화적 정체감을 유지하고 정서적 지원, 물질적 보조, 서비스, 정보 및 새로운 접촉 기회 등을 제공받는, 일련의 개인적 관계의 망을 넓히는 역할을 함으로써, 이를 잘 활용할수록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고 있다[8].

좀 더 구체적으로 보자면, 경제적 자립은 자본변수와 함께 장애인의 생활만족을 높여주는 변인으로 지지된다.

일반적으로 건강하고 학력이 높을수록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으며, 높은 수준의 교육, 기술, 소득을 가지고 있을수록 경제적 활동에 더 참여할 수 있다[9]. 즉 높은 교육수준은 경제활동에 보다 쉽게 참여하고 경제적 자립 기회를 더 많이 가지도록 하며[10], 소득 변수 또한 경제적 자립과의 관계에 있어서 긍정적인 변수이다[11]. 이외에도 가구(집)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 밀접한 상관성을 갖는데, 주택소유주일수록 경제활동 참여경향이 높고 동시에 경제적 자립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임을 예측할 수 있다[12]. 따라서 장애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문화적 자본 수준은 그 정도에 따라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장애인 자신의 통제력과 대외 관계상의 직관적이거나 비관적인 사고 경향을 좌우하는 변수로도 매우 중시된다[13].

그러나 이와 같은 인적 자본과 사회문화적 자본이 인간이 처한 다양한 고용 전반에서의 경제자립과 생활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한 기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관련 연구의 접근은 소득과 수급조건, 복지지원 관점에서만 주로 이루어지면서[12,14,15,16,17] 보다 근본적인 인적 차원의 변인들과 함께 사회문화적 관계망 속에서의 관련 변수를 접목하여 폭넓게 활용하지 못한 한계를 보여 왔다. 특히 앞에서 논의된 인적 자본과 사회문화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사용하거나 이들 변수간의 관계를 묶어 하나의 중속된 관계로 보는 연구는 아직 시도조차 되지 못했다. 또한 장애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문화적 자본의 수준과 정도에 따라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관계에서 더욱 중요한 장애인 자신의 통제력과 대외 관계의 경향이 매우 중시되고, 이에 따라 만족이 다름을 관련 연구결과들을 통해 확인할 수 있음에도 이에 대한 획일적 적용이나 통제 없이 사용되어 온 것이 지금까지 연구들의 한계로 지적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문화적 자본을 독립변수로 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미치는지 이의 인과 관계를 밝힘으로써 사회정책적 논의에 임하고자 한다.

2. 이론적 배경

2.1 인적 자본이론

인적 자본은 한 개인이 갖고 있는 특정 재능이나 지식, 기술을 말한다. 이는 1960년대 Becker[18]에 의하여 제기

된 이론으로 여기서 자본은 상품과 같은 재화의 생산을 위한 것을 의미하며, 자본은 생산을 촉진하는 역할, 하나의 상품처럼 소비되는 것뿐만 아니라 직접적으로 사용되어 소멸되지 않는 자원 또는 투입 요소를 의미한다[16]. 인적 자본의 개념에는 원래 물적 자본만 해당하였다. 그러나 Becker에 의한 인적 자본 개념 등장 이래 문화적 및 사회적 자본 등 많은 종류의 자본 개념이 등장하면서 변수는 다원화되었다.

Becker[18]에 따르면, 인적 자본은 기계 혹은 공장 등에서 물적 자본이 오랜 시간동안 생성되는 것과 동일하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술, 지식 등이며, 기업이나 학교에서의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형성된 기술 및 지식도 포함한다. 또한 인적 자본의 형성을 위한 투자, 이를 테면 교육과 훈련은 생산성과 소득을 증대시키고 나아가 한국가의 경제성장에 이바지한다. 그리고 그와 같은 교육과 훈련의 기회가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소득격차가 줄어들게 되어 소득분배구조도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와 같이 인적 자본은 교육과 숙련기술, 건강상태로 요약될 수 있고, 특히 인적 자본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 간주되는 것은 교육과 소득관련 변수다[19]. 특히 높은 수준의 교육, 기술, 소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수록 경제활동에 더 참여할 것으로 본다. 그리고 양질의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경제활동을 수행하는 데에 있어서 수월함과 보다 전문적인 경제활동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경제활동은 건강하고, 고학력자이며, 경제적 수준이 비교적 높은 집단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한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대부분의 학자들은 인적 자본 변수 중에서 경제활동을 예측하는 변수로 지식으로서의 학력과 기술로서의 자격증 취득이나 보유여부, 취업여부 및 수입유무를 제시하였다[9,12,17]. 따라서 이들 변수는 경제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기제로서 경제적 자립과의 연관성을 예측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적 자본을 개인적으로 내재되어 있는 지식, 기술, 건강으로 보고 이들이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미치는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학력, 자격증 보유여부 및 취업유무와 건강상태에 따른 노후준비, 수입여부, 수입 및 주택소유를 인적 자본의 독립변수로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2 사회문화적 자본

사회문화적 자본은 주변 사람들과 맺고 있는 관계로, 이는 학자마다 다르고[20], 그 기능과 역할에 대한 연구 또한 초점에 따라 다양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사회문화적 자본을 인간을 둘러싼 사회적인 형태 또는 구조로 파악하고 이를 이용하여 수평적인 민주주의 확대나 경제자립에 사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 같은 사회문화적 자본의 효과와 가치에 대해 Lin[21]은 정보흐름의 촉진, 조직에 대한 영향력 증대, 사회적 신분에 대한 보증, 개인 권리의 강화로 설명하면서, 정보 획득 효과와 지원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정보 획득효과는 사회문화적 자본 속에 이전에 가질 수 없었던 정보를 얻게 되는 효과로서, 이는 정보탐색의 비용 절감효과와 정보의 질이 높아지는 두 가지 측면이 존재한다고 본다. 사회문화적 자본을 통하면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이 줄어들며, 얻은 정보의 질도 우수해진다는 것이다.

이처럼 유용성을 갖는 사회문화적 자본의 측정변수는 사람들의 규모로 측정되는 크기와 개인의 접촉에 의해 표시되는 집단의 다양성 범위 그리고 접촉 빈도, 심리적 가까움의 정도, 네트워크 내 상호작용의 정도를 의미하는 강도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개인, 사회, 문화적으로 연결된 사람들의 공식적 지위가 자신과 비교하여 얼마나 높으냐를 의미하는 지위로도 사용된다[20,22]. 이러한 사회문화적인 연결은 장애인의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해준다[21]. 특히 기존의 연구를 볼 때, 단체 가입 여부 또는 회의참석여부 등의 사회적 관계망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에 더 많이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4]. 이는 가족 내 후원과 친밀도, 친구관계 및 사회적 네트워크가 많을수록 경제적 활동 참여에 대한 기회를 많이 접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회문화적 자본은 경제적 자립과도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갖는 변수로 추론할 수 있는 바, 본 연구에서는 가족관계와 사회관계, 친구관계 망 속에 결속을 맺고 있는 구성원을 독립 변수로 반영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3 경제적 자립

경제적 자립은 개인 또는 가정, 단체 등이 경제적 주체로서 독립된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로서 직접적으로 소득을 창출하고 사회의 생산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통해 빈곤선 이상의 생활을 해나가는 것을 말한다.

다. 경제적 자립에 관한 연구를 볼 때, 자립과 관련한 변수로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의 범위와 양은 커진다고 보았다. 또한 직업도 경제적 자립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 된다. 특히 전문직이나 관리직일 경우, 교육을 통해 성공을 달성할 확률이 높다. 이는 곧 사회경제학적 수준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률이 높아 더 나은 삶의 질과 직업적 성공을 누리고, 반대일 경우 취업탐색의 기회가 줄어 경제적으로도 어려움을 느끼는 것들을 의미한다[23].

한편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뒷받침해주는 선행변수로는 성별, 연령, 혼인상태, 교육수준, 소득수준, 가구원수 등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어 왔다[24]. 먼저 성별의 경우, 그 차이는 다양하게 나타난다. Nickerson 등[25]은 중단 연구를 통해, 남녀 간의 경제적 활동의 차이가 유의하게 나타나지만 가족 월수입이 증가하면 남녀 간의 차이가 줄어들어 수입이 최고인 집단에서는 남녀 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교육수준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높은 주관적 안녕에 이르게 하는 것은 교육 자체가 아니라 교육으로부터 파생되는 노동시장 참여, 건강, 인식된 신뢰, 높은 수입이라는 것이다[26]. 또한 농촌지역 연구에서 교육수준에 따라 소득 차이가 나타났는데, 무학인 사람은 중학교 이상의 교육을 받은 사람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점수를 보여 교육수준이 주요변수임을 확인시켜 주었다. Ko[27]는 건강상태가 좋을수록 소득수준이 높다고 하였으며, Chung[28]은 저소득 노인의 연구에서 노인의 정신건강 상태가 좋을수록 삶의 질 수준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신체적 상태도 주요 선행변수로 지지되는데, 이는 근로능력이나 경제활동을 통한 근로소득이 포함된 장애 상태로 질병이나 장애 상태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에 대한 범주로 앞서 검토된 내용을 바탕으로 경제활동, 근로소득, 근로능력 요인을 반영하여 측정하고자 한다.

2.4 생활만족도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인 개념으로 여러 학자들에 의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지만, 자신의 삶의 질에 대한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인생이 어느 정도 만족스러울가를 평가하는 것이다. 즉 물질적이든 정신적이든 인생목표나 욕구의 달성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평가를 의미한다.

Burr 등[29]은 생활만족도를 단순하게 두 가지 차원으로 구분했는데, 첫 번째 차원은 개인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 갖는 긍정적 기대와 기대 충족사이의 일치정도이며, 두 번째 차원은 주관적으로 경험한 만족과 불만족, 행복과 불행 그리고 즐거움과 괴로움이라고 하였다. Sousa와 Lyubomirsky[30]은 생활만족도를 자신의 삶의 환경에 대해 만족하거나 또는 수용하는 것이며, 이것은 인간의 전체 삶을 위한 필요와 욕구의 충만을 의미한다고 하였다. Rowe와 Kahn[31]은 성공적인 생활 안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식습관과 운동 등 건강한 생활을 해야 하며, 신체적·인지적 기능을 긍정적으로 유지해 생산 활동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수로 생활만족도를 지적하였다. Moody[32]는 성공적인 삶의 질의 중심 주제를 생활만족도로 보았으며, 김동주와 고민석[33]은 경제활동의 기준으로 생활만족도를 제시하였다. Chou와 Chi[34]는 생활만족도를 성공적인 삶의 질을 파악하기 위한 하나의 요인으로 보았으며, Diener[35]는 생활만족도를 주관적 안녕감으로 보고 이를 자신의 생활에 대한 인지적 평가로서의 생활의 만족도, 정서적 평가로서의 정적 정서와 부적 정서의 경험빈도를 구성요소로 제시하였다.

이렇듯 생활만족도는 다차원적인 입장에서 접근되고 있으며, 전체적으로 볼 때 개인에게 행복을 부여하여 긍정적인 심리상태를 표현할 수 있는 주관적인 안녕감 또는 질적인 삶의 만족감이라 할 수 있으며, 과거와 현재, 미래의 생활, 행복에 대한 개인 자신의 평가 또는 그에 대한 만족으로 간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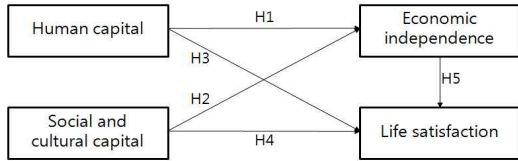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생활만족도를 현재의 삶에 대한 만족, 주관적 안녕감으로 해석한 Diener[35]의 연구를 근거로 생활 속의 활동을 열성으로, 인생에 대한 목표성취를 일치감으로, 생활에 대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자아감으로 해서 근로활동 만족, 직무만족과 건강상태를 반영하여 사용하고자 한다.

3. 방법

3.1 가설설정

기존 선행연구를 볼 때 장애인의 경제관련 자본 변수 중 인적 자본에 있어 복지수급변수와 소득변수가 지지되고, 문화적 자본 교류관계에서는 가족과 사회와 친구,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주요변수로

사용되고 있음에 따라 이들 변수를 모형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변수로서 인적 자본은 학력, 수급유무, 수입, 취업, 주택소유, 자격증, 노후준비 등의 지식, 기술, 건강을, 사회문화적 자본은 사회, 친구, 가족 관계를 반영하고, 종속변수로는 경제적 자립과 만족도를 반영하여[39] [Fig. 1]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정하였다.



[Fig. 1] Analysis framework

위의 모형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 검정할 가설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Table 1> Setting a hypothesis

Hypothesis	Contents
H1	Human capital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conomic independence.
H2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conomic independence.
H3	Human capital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4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H5	Economic independence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3.2 분석자료 및 연구대상

본 연구의 분석 자료는 2015년 한국복지패널(Korea Welfare Panel Study)에서 제공한 9차 자료를 사용하였다. 한국복지패널 자료는 서울을 비롯한 7개 광역시와 제주도를 비롯한 9개도의 가구를 대상으로 연 1회 실시하는 전국적인 대표성을 가진 자료이다. 또한 표본 대상은 성인 장애가구주 581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3.3 측정변수의 구성 및 측정방법

3.3.1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

경제적 자립변수는 근로능력, 경제활동, 근로소득으로 사용하고 측정은 5점 리커트 척도로 구성하였으며, 생활

만족도는 근로활동만족과 직무만족, 건강상태의 전반적인 만족수준으로 보았다.

3.3.2 인적 및 사회문화적 자본

첫째, 인적 자본 변수는 학력, 수급여부, 수입, 취업여부, 주택소유여부, 자격증소유여부, 노후준비여부로 구분된다. 학력은 고졸이하를 기준집단으로 더미변수(dummy variable)화 하였으며, 수급여부는 수급여부를 기준집단으로, 취업여부는 비근로 활동인구와 실업자를 미취업으로 구분하여 기준집단으로, 주택소유여부는 비소유를 기준집단으로, 자격증소유여부는 없음을 기준집단으로, 노후준비여부는 없는 경우를 기준집단으로 더미변수화하여 처리하였다. 그 외에도 수입은 근로소득 총계와 근로외의 소득 총계를 합한 연속변수로 사용하여 점수가 높을수록 수입이 높음을 의미한다. 독립변수는 회귀분석을 위해 가능한 더미변수화 하여 재코딩하였는데, 기초자료 분석을 위한 기술통계 분석 시에는 범주형으로 구분하였다.

둘째, 사회문화적 변수와 관련하여 사회·문화적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네트워크 관계 구조를 어떻게 파악하느냐, 즉 사회문화적 관계교류를 무엇으로 측정할 것인가에 관한 것이다[36]. 기존의 연구에서 네트워크 관계구조를 크기(Size), 범위(Range), 강도(Strength), 밀도(Density), 지위(Status), 유유상종(Homophily), 중첩성(Multiplexity), 중심성(Centrality), 구속성(Constraint)등의 하위변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크기, 범위, 강도, 빈도를 중심으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문화적 관계교류를 측정하기 위해 Morrison[36]의 연구를 번역하여 사용한 김영주와 유태용[37], 진동철[38]의 척도를 사용하였다. 즉 사회문화적 관계 교류의 크기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하위변수, 즉 가족관계, 사회관계, 친구관계로 구성되며, 이를 상호 간 네트워크 형성에 따라 얼마나 친밀감을 느끼는지 그리고 얼마나 자주 교류(관계)하는지와 관련하여 5점 리커트 척도로 측정하였다.

3.3.3 통제변수

통제변수는 인구사회학적 변수와 장애관련 변수를 통제변수로 설정하였다. 인구사회학적 변수 중 성별은 남성을 기준집단으로, 종교는 없음을 기준집단으로, 혼인상

태는 이혼, 사별, 별거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를 기준 집단으로 하여 더미변수 처리하였다. 장애관련 변수 중 장애등급은 2개구분 변수를 활용하여 경증을 기준집단으로 더미변수화 하였고, 만성질환여부와 타인의 도움필요는 없음을 기준집단으로 더미변수화 하여 분석하였다.

<Table 2> Control variable

Population sociology			Level of disability		
Gender	1-item re-coding	0=male, 1=female	Level	1-item re-coding	0=severity at disability level, 1=Severe
Religion	1-item re-coding	0=none, 1=has exist	Chronic disease status	1-item re-coding	0=none, 1=has exist
Marriage condition	1-item re-coding	0=no spouse, 1=has a spouse	Need help	1-item re-coding	0=none, 1=has exist

4. 결과

4.1 인구통계학적 특성 분석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살펴보면 성별에서 남성 248명(42.7%), 여성333명(57.3%), 종교유무에 대해서는 ‘종교가 없는 사람’ 166명(28.6%), ‘종교를 가지고 있는 사람’ 215명(37.0%), 혼인상태는 미혼 316명(54.4%), 결혼/동거 109명(18.8%), 이혼 78명(13.4%), 사별 58명(10.0%), 별거 20명(3.4%)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수준은 경증 278명(47.8%), 중증 303명(52.2%), 만성질환여부에 있어서는 없음 249명(42.9%), 있음 332명(57.1%)으로 나타났다.

4.2 인적 자본의 특성 분석

다음 <Table 3>은 인적 자본의 특성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학력은 고졸이하 566명(97.4%), 대졸이상 15명(2.6%)이었다. 수급여부는 수급이 205명(42.6%), 비수급이 276명(57.4%)으로 나타났고 수입은 < 200 56명(42.7%), 200<,<400 11명(8.4%), 400<,<800 25명(19.1%), 800<,<1000 28명(21.4%), >1000 11명(8.4%)으로 나타났다. 취업여부는 미취업 449명(77.3%), 취업 132명(22.7%)으로 나타났고, 주택소유여부는 비소유 454명(78.1%), 자

가소유 127명(21.9%)이었다. 자격증소유여부는 없음이 487명(83.8%), 있음이 94명(16.2%)으로 나타났고, 노후준비여부는 없음이 436명(92.4%), 있음이 36명(7.6%)으로 나타났다.

<Table 3> Characteristics of human capital

Factor	Variable	Measure	N	%
Human capital	Education	Less than high school graduate	566	97.4
		College degree or higher	15	2.6
	Availability	Supply	205	42.6
		Non-supply	276	57.4
	Income	< 200	56	42.7
		200<,<400	11	8.4
		400<,<800	25	19.1
		800<,<1000	28	21.4
		>1000	11	8.4
	Employment status	Unemployed	449	77.3
		Employed	132	22.7
	Home-ownership	Non-possession	454	78.1
		Homeownership	127	21.9
	Whether you own a license	None	487	83.8
		Has exist	94	16.2
Old-age preparedness	None	436	92.4	
	Has exist	36	7.6	

4.3 주요변수 기술통계

다음은 사회문화적 자본, 경제적 자립, 생활만족도의 기술통계 분석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사회문화적 자본의 전체 평균은 2.77 점으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가족관계($M=3.24$), 사회관계($M=2.62$), 친구관계($M=2.43$) 순이었다. 즉 사회관계, 친구관계에 대한 응답은 불만족에 가까운 응답을 보였으며, 가족관계에 대해서는 보통 수준에 머물러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제적 자립의 경우, 근로활동은 평균적으로 만족에 가까운 결과($M=3.73$)를, 근로소득은 불만족에 가까운 응답($M=1.36$)을, 근로 능력은 평균적으로 보통 수준($M=3.40$)에 머물러 있었다.

생활만족도의 결과를 보면, 근로활동만족($M=2.28$)이 가장 낮았으며, 근로활동만족, 직무만족, 건강상태만족 모두 전반적으로 보통에 못 미치는 불만족 수준을 보였다.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main variables

Variable		M (SD)	Skewness	Kurtosis
Social and cultural capital	Social relations	2.62 (.784)	.21	-.40
	Friend relations	2.43 (.833)	.26	-.37
	Family relations	3.24 (.927)	-.53	.24
Economic independence	Working ability	3.40 (.944)	-1.31	.38
	Labor activity	3.73 (1.540)	-.91	-.82
	Earned income	1.36 (1.575)	1.10	.07
Life satisfaction	Satisfaction with working activities	2.28 (.751)	.44	.05
	Job satisfaction	2.70 (1.041)	-.41	-.98
	Health satisfaction	2.44 (.858)	.32	-.48

또한 측정도구의 신뢰도 확보를 위해 Cronbach's α 값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 <Table 5>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평균 .81로 나타나 변수의 하위요인별 모든 문항에서 0.7 상의 수준을 확인하여 신뢰도를 확보하였다.

<Table 5> Reliability of measures

Measures	Sub-measures	Reliability	
Independent variable	Human capital	Education	.76
		Availability	
		Income	
		Employment status	
		Homeownership	
		Whether you own a license	
		Whether Old age preparation	
Social capital	Social relations satisfaction	.81	
	Cultural capital	.88	
Parameter	Economic independence	Working ability	.78
		Economic activity	
		Income satisfaction	
Dependent variable	Life satisfaction	Satisfactory treatment activity	.79
		Leisure activities	
		Satisfaction with health condition	
Results		.81	

4.4 인적 자본이 경제적 자립에 미치는 영향

다음 <Table 6>은 인적 자본이 경제적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본 회귀모형은 17.8%의 설명력을 가졌으며,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3.74, p<.05$). 독립변수별로는 경제적 자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수입, 주택소유여부로 나타났다($p<.05$). 즉, 수입이 있을 때 경제적 자립이 .18 증가하고, 주택소유는 경제적 자립에 .11 만큼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Table 6> The effect of human resources on economic independence

Constructs	B	s.e	β	t	p	F	R ²
(Constant)	2.88	.30		9.52	.00	3.74	.178
Education	.01	.04	.04	.27	.79		
Grant status	.05	.13	.05	.38	.70		
Incomes	.24	.17	.18	2.88	.01		
Job status	-.24	.14	-.18	-2.01	.05		
Home-ownership	.16	.16	.11	2.18	.03		
Certificate	-.04	.12	-.04	-.29	.77		
Old age preparation	.07	.15	.05	.47	.64		

Dependent variable : Economic independence

4.5 인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다음 <Table 7>은 인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Table 7> The effect of human resources on life satisfaction

Constructs	B	s.e	β	t	p	F	R ²
(Constant)	.99	.63		1.58	.12	7.23	.343
Education	.32	.20	.16	1.61	.11		
Grant status	.57	.17	.40	3.37	.00		
Incomes	.06	.05	.13	1.09	.28		
Job status	1.03	.55	.16	2.01	.05		
Home-ownership	.07	.17	.04	.39	.70		
Certificate	.29	.15	.20	1.99	.05		
Old age preparation	.19	.18	.10	1.03	.31		

Dependent variable : Life satisfaction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4.3%,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7.23, p<.05$). 독립변

수별로는 수급여부, 취업여부, 자격증소유여부가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즉 수급여부가 높아지면 생활만족도는 .40 높아지고, 취업여부가 높아지면 생활만족도가 .16 증가하고, 자격증소유여부가 높아지면 생활만족도는 .20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인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수급여부, 취업여부, 자격증소유여부가 중요한 요인임을 볼 수 있다.

4.6 사회문화적 자본이 경제적 자립에 미치는 영향

<Table 8>은 사회문화적 자본이 경제적 자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0.5%이며 회귀식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98, ns$). 독립변수별로도 경제적 자립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아, 사회문화적 자본은 경제적 자립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Table 8> The effect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on economic independence

Constructs	B	s.e	β	t	p	F	R ²
(Constant)	2.97	.11		26.99	.00		
Family relations	-.02	.03	-.03	-.63	.53	.98	.005
Social relations	.01	.03	.02	.36	.72		
Friendship	-.05	.03	-.07	-1.49	.14		

Dependent variable : Economic independence

4.7 사회문화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Table 9>는 사회문화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회귀분석 한 결과이다.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56.9%이고, 회귀식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F=65.602, p < .05$). 독립변수별로는 사회관계, 친구관계만이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p < .05$). 사회관계가 높아지면 생활만족도는 .16 높아지고, 친구관계가 높아지면 생활만족도는 .69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생활만족도에 사회문화적 자본의 하위요인인 가족관계를 제외한 사회관계 및 친구관계가 중요한 요인임을 볼 수 있다.

<Table 9> The effect of social and cultural capital on life satisfaction

Constructs	B	s.e	β	t	p	F	R ²
(Constant)	1.01	.18		5.68	.00		
Family relations	-.07	.04	-.10	-1.88	.06	65.60	.569
Social relations	.14	.05	.16	2.75	.01		
Friendship	.54	.05	.69	11.75	.00		

Dependent variable : Life satisfaction

4.8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10>에 제시하였다.

<Table 10> The effect of economic independence on life satisfaction

Constructs	B	s.e	β	t	p	F	R ²
(Constant)	2.47	.40		6.20	.00		
Working ability	.10	.07	.12	1.35	.18	1.38	.026
Work activity	-.04	.05	-.09	-.80	.42		
Earned income	-.04	.04	-.09	-.91	.36		

Dependent variable : Life satisfaction

분석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2.6%, 회귀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F=1.38, ns$). 독립변수별로는 생활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경제적 자립은 생활만족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1> The result of hypothesis test

Hypothesis	Contents	Result
H1	Human capital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conomic independence.	accept
H2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conomic independence.	accept
H3	Human capital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reject
H4	Social and cultural capitals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accept
H5	Economic independence will have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life satisfaction.	reject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Table 11>과 같이 본 연구의 가설 중 가설 1, 2, 4의 세 개의 가설이 채택되었다.

5. 결론

본 연구는 장애인의 인적 및 사회문화적 자본이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과 상호 인과관계를 밝히는 데 목적을 갖고 실증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앞선 <Table 11>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종합적으로 인적 자본은 경제적 자립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사회문화적 자본 또한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인적 자본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과 경제적 자립이 생활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은 기각됨으로써 인적 자본만으로 바로 생활만족에 활력소가 되지 못하고, 경제적 자립이 바로 생활만족도를 높여주는 기제로서 상호효과성을 갖지 못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인적 자본과 사회문화적 자본이 경제적 자립을 높여줄 수 있는 촉진요소로서 유용성을 가짐과 동시에 경제적 자립변수에 따라 생활만족도에도 영향을 나타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 변수의 상호밀접성과 유용성을 확인하게 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사회경제적 활동이 저조하여 주택소유나 노후준비 등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의 생활환경을 감안할 때, 그들의 취약성 제고와 생활 안정성 확보를 위해 인적 자본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인적 자본의 확대가 장애인의 생활상에서 당장 직접적인 경제지원과 안정을 꾀하는 데는 아직 충분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장기적으로는 이 과정에서 사회적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개인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가능하도록 유인할 수 있다. 그리고 이렇게 확대된 장애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적 네트워크는 궁극적으로 경제적 자립과 생활만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제로 작동할 수 있다. 또한 사회문화적 자본이 사회, 친구, 가족 관계형성과 그에 대한 만족이 높을수록 경제적 자립을 높이는 데 유의한 영향력을 미친다는 관점에서도 관련한 사회적 네트워크 활동지원 강화방안의 필요성을 더 잘 인식해야 한다.

따라서 주요 논의로서 우선 노동시장에서 소외된 장애인에 대해 사회복지 급여 등의 선별적이고 긴급한 보호체계의 제기능화와 부양의무제 폐지와 같은 제도적 개선이 지속적으로 요구된다. 그러나 보다 궁극적인 장애인 당사자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적 지위 향상 및 생활의 만족도 증진을 위해서는 개인의 환경 특성과 생애주기에 따른 교육과 훈련지원 체계의 내실화 및 고도화 노력이 필요하다. 동시에 장애인의 직업 및 사회심리재활 차원에서 지역사회 서비스방안들이 더욱 고안되어야 하며,

이들 서비스 체계의 효과성 및 효율성 제고를 통한 결합이나 공백 극복을 위한 촘촘한 복지기반 네트워크가 제기능화 되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하여 실용적이고 다변화된 인적 및 사회문화적 관계망 형성을 지원한다면, 그 과정에서 유용한 자본의 축적과 확대가 이루어지고, 장애인의 주체적 참여로써 이들 간 자원망의 연계와 활용으로 생활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지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국가 통계라는 대표성 있는 표본을 활용한 연구로서의 의의를 가지지만, 단면연구가 가지는 제한점을 지닌다. 즉 장애인의 인적 자본과 사회문화적 자본, 경제자립 및 생활만족도의 요인을 정의하고 결정요인을 추정할 수는 있지만, 데이터에 포함되지 않은 요인 간 관계를 입증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결과해석에 있어 패널 조사 자료를 통해 조사 대상자의 대표성을 확보한 데 반해, 변수설명을 위한 자료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이 논문은 2016년도 중부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REFERENCES

- [1] D. G. Kim, D. H. Shin. "A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Social Status of the Disabled Person on the Quality of Life: The Mediating Effect of Health Level and Self-Esteem,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Vol. 19, No. 1, pp. 151-172, 2015.
- [2] D. J. Lim, S. H. Moon. "The Effect of the Economic Factors of the Disabled Person on the Degree of Satisfaction", Korean Journal of Policy Analysis and Evaluation, Vol. 24, No. 2, pp. 73-101, 2014.
- [3] K. J. Lee. "A Study on the Basic Livelihood Security for Absolute Poor Disabled Householders: Focused on the 2015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Crisisonomy, Vol. 11, No. 8, pp. 245-272, 2015.

- [4] C. S. Kim, S. I. Choi, "The Relationship between Participation Motive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Volunteer Activities of the Elderly People", *The Journal of the Korea Contents Association*, Vol. 12, No. 4, pp. 315-326, 2012.
- [5] D. W. Kim, "Convergence Study on the Participation Level of Physical Activity for the Physically Handicapped on Objectified Body Consciousness (OBC)",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5, pp. 247-254, 2016.
- [6] Y. M. Son, B. S. Jung, "Convergence Development of Video and E-learning System for Education Disabled Student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4, pp. 113-119, 2015.
- [7] D. W. Kim, "Convergence Study on Positive Psychological Capital (PPC) of Persons with Physical Disabilities Following Participation in Swimming Club for 10 Week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7, No. 3, pp. 159-165, 2016.
- [8] G. W. Moon, K. W. Kim, S. B. Choi, "Multiple Perspectives on Knowledge Management: Social Network, Resource Dependency, and Institutionalization Theories",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Vol. 10, No. 4, pp. 43-60, 2009.
- [9] J. H. Kim, W. M. Gang, S. Y. Moon, "The Analysis of the Relation between Baby Boomer's Social Capital Recognition and Social Formation: Focusing on the Volunteering & Giving Activity", *Social Welfare Policy*, Vol. 40, No. 3, pp. 25-50, 2013.
- [10] H. K. Lee, "Examining Characteristics, Frequencies, Hours of Volunteering Among Korean Older Adults: Promoting Volunteerism",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62, pp. 317-344, 2013.
- [11] W. Tang, Interpersonal trust and democracy in China. Paper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2006.
- [12] K. Hank, M. Erlinghagen, "Dynamics of volunteering in older Europeans", *Gerontologist*, Vol. 50, No. 2, pp. 170-178, 2009.
- [13] H. K. Lee, "Old-Age Volunteering and Social Capitals: The Effects of Social Capital", *Korean Journal of Gerontological Social Welfare*, Vol. 50, pp. 263-290, 2010.
- [14] M. D. Kim, S. C. Hong, C. I. Lee, Y. S. Kwak, T. K. Shin, Y. H. Jang, E. H. Oh, J. W. Lee, B. H. Jeon, S. E. Hwang, "Prevalence of Depression and Correlates of Depressive Symptoms for Residents in the Urban Part of Jeju Island, Korea", *International Journal of Social Psychiatry*, Vol. 53, No. 2, pp. 123-134, 2007.
- [15] L. R. Fisher, K. B. Schaffer, *Older Volunteer: A Guide to Research and Practice*, New York, Sage, 1993.
- [16] J. Wilson, M. Musick, "Who cares? Toward an integrated theory of volunteer work",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Vol. 62, No. 5, 1997.
- [17] J. Wilson,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Vol. 26, No. 1, pp. 215-240, 2000.
- [18] G. Becker, *Human Capital: A Theoretical and Empirical Analysis with Special Reference to Education* (3rd ed.),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3.
- [19] T. K. McNamara, E. Gonzales, "Volunteer Transitions among Older Adults: The Role of Human, Social, and Cultural Capital in Later Life", *The Journals of Gerontology, Series B: Psychological Sciences and Social Science*, Vol. 66, No. 4, pp. 490-501, 2011.
- [20] H. Ibarra, "Paving an Alternative Route: Gender Differences in Managerial Networks", *Social Psychology Quarterly*, Vol. 60, No. 1, pp. 91-102, 1997.
- [21] N. Lin, *Social Capital: A Theory of Social Structure and Ac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 [22] J. L. Pearce, *Volunteers: The Organizational*

- Behavior of Unpaid Workers, London, Routledge, 1993.
- [23] M. Semyonov, N. Lewin-Epstein, "The Impact of Parental Transfers on Living Standards of Married Children", *Social Indicators Research*, Vol. 54, No. 2, pp. 115-137, 2001.
- [24] D. C. Ribar, K. S. Hamrick, *Dynamics of Poverty and Food Sufficiency (Food Assistance and Nutrition Research Report No. 36)*, Washington,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conomic Research Service, 2003.
- [25] D. P. Nickerson, M. West, G. Odorizzi, "Did2 Coordinates Vps4-Mediated Dissociation of ESCRT-III from Endosomes", *The Journal of Cell Biology*, Vol. 175, No. 5, pp. 715-720, 2006.
- [26] J. F. Helliwell, "How's Life? Combining Individual and National Variables to Explain Subjective Well-being", *Economic Modelling*, Vol. 20, No. 2, pp. 331-360, 2003.
- [27] S. D. Ko, Study of extracting the factors deciding the quality of the life of the old. Ewha Womans University, Ph.D. thesis, 1995.
- [28] Y. Chung, "Poverty and Family Structure of the Children with Developmental Delay and Disability", *Journal of Emotional and Behavioral Disorders*, Vol. 19, pp. 55-69, 2003.
- [29] W. R. Burr, G. K. Leigh, R. D. Day, J. Constantine, *Symbolic interaction and the family*, In W. R. Burr, R. Hill, F. I. Nye, I. L. Reiss (Eds.), *Contemporary Theories About the Family: General Theories and Theoretical Orientations (Vol. 2, pp. 42-111)*, New York, Free Press, 1979.
- [30] L. Sousa, S. Lyubomirsky, Life satisfaction, In J. Worell (Ed.), *Encyclopedia of Women and Gender: Sex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and the Impact of Society on Gender (Vol. 2, pp. 667-676)*, San Diego, Academic Press, 2001.
- [31] J. W. Rowe, R. L. Kahn, *Successful Aging*, New York, Pantheon/Random House, 1998.
- [32] H. R. Moody, *Productive aging and the ideology of old age*, In N. Morrow-Howell, J. Hinterlong, M. W. Sherraden (Eds.), *Productive Aging: Concepts and Challenges (pp. 175-196)*, Baltimor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pp. 175-196, 2001.
- [33] D. J. Kim, M. S. Ko, "The Study of Economic Activity of Intellectual Disables Related to Variables", *Journal of Intellectual Disabilities*, Vol. 14, No. 1, pp. 241-261, 2012.
- [34] K. L. Chou, I. Chi, "Financial Strain and Life Satisfaction in Hong Kong Elderly Chinese: Moderating Effect of Life Management Strategies Including Selection, Optimization, and Compensation", *Aging and Mental Health: An International Journal*, Vol. 6, No. 2, pp. 172-177, 2002.
- [35] E. Diener, "Subjective Well-being: The Science of Happiness, and a Proposal for a National Index", *American Psychologist*, Vol. 55, pp. 34-43, 2000.
- [36] E. W. Morrison, "Newcomers' Relationships: The Role of Social Network Ties During Socialization",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Vol. 45, No. 6, pp.1149-1160, 2002.
- [37] Y. J. Kim, T. Y. You, "The Influence of Personal Characteristics on Social Network Size in Organizational and the Impact Social Network Size and Strength on Job Performance", *Korean Journal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Vol. 22, No. 1, pp. 27-51, 2009.
- [38] D. C. Jin, *The Influence of employees' social network on organization's communication and Innovation*, Chungang University, Master's thesis, 2012.
- [39] J. J. Yang, "The Social Investment State Deserves the Welfare State Model for Korea: A Reply to Critics of the Social Investment State", *Economy and Society*, Vol. 75, 319-335, 2007.

저자소개

이 경 준(Kyong-Jun Lee) [정회원]



- 2002년 8월 : 독일 쾰른대학교 (Univ. zu Koeln) 사회복지학전공 (Diplom Paed.)
- 2005년 7월 : 독일 쾰른대학교 (Univ. zu Koeln) 사회복지학전공 (Dr. paed.)

• 2009년 9월 ~ 현재 : 중부대학교 복지학부 교수
<관심분야> : 장애인복지, 사회심리재활, 고령장애, 장애인인권/위기관리

정 명 선(Myung-Sun Chung) [정회원]



- 1999년 8월 : 경북대학교 일반대학원 심리학과 (문학석사)
- 2010년 2월 : 대구대학교 일반대학원 재활심리및상담심리전공 (이학박사)
- 2009년 9월 ~ 2011년 2월 : 생명장심리상담센터 소장

• 2011년 3월 ~ 현재 : 중부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교육전공 교수
<관심분야> : 상담 및 심리치료, 긍정심리, 척도개발, 교육정책